

2026

Style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Special Edition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ART OF TIME: 에나멜드 마스터피스 전시

Art of Time

약 2백71년의 역사를 이어오며 하이엔드 위치메이킹 기술력과 노하우를 선보이고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 올해는 많은 위치메이킹 장식 기법 중 시간을 초월한 예술과 장인 정신의 정수를 보여주는 ‘에나멜링’을 조명한다. 에나멜링의 역사부터 비밀스러운 마스터 에나멜러의 작업 공간은 물론,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탄생한 메종의 특별한 마스터피스까지 만나볼 수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을 통해 하이 위치메이킹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에나멜의 찬란한 세계로 깊이 빠져들 시간이다.



시간의 예술, 에나멜드 마스터피스 전시

색채와 불을 활용하는 연금술이자 뛰어난 예술성을 담은 유서 깊은 메티에 다르 장식 기법인 에나멜링은 주얼리뿐 아니라 위치메이킹 분야에서도 오랫동안 활용되어왔다. 시계의 탄생부터 지금까지 2백71년 동안 함께해온 바쉐론 콘스탄틴 역시 에나멜링에 대한 깊은 노하우를 가지고 수많은 위치를 제작해왔다. 그리고 2026년 9월, 위치메이킹에서의 에나멜링 역사에 대한 이야기로 두 번째 공공 전시를 개최한다. 풍부한 문화 유산을 담은 헤리티지 타임피스를 통해 에나멜링 역사와 기법을 탐험하며, 색채의 장인인 마스터 에나멜러의 섬세하고 예술적인 작업 공간을 엿볼 수 있다. 또 세계적인 명화를 다이얼에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재현해 시간을 초월한 예술적 가치를 소장하는 특별한 마스터피스 전시로 이어져, 시간을 예술로 승화시킨 에나멜링의 여정을 만나볼 수 있다. <ART OF TIME: 에나멜드 마스터피스> 전시는 9월 5일부터 22일까지 바쉐론 콘스탄틴 메종 1755 서울에서 열리며, 온라인 예약으로 방문해 관람 가능하다.

탁월함과 창의성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정

에나멜링은 다양한 광물에 금속 산화물을 추가한 용해 물질로 구성된 합성물로 컬러를 연출하는 기법이다. 지금까지 4천 년의 세월을 지나온 에나멜링은 안료와 불, 그리고 장인의 섬세한 손길로 다양한 장식 오브제에 화려함을 부여하는 고귀한 예술로 자리 잡

았다. 위치메이커들은 16세기부터 에나멜링 기법을 도입했다. 그리고 17세기, 에나멜링은 제네바에서 본격적으로 위치메이킹에 사용되었다. 그 시작은 '제네바 에나멜로, 그랑 피 에나멜에 미니어처 페인팅을 구현한 다음 보호용 플렉스 코팅을 입히는 기술이었다. 이는 타임피스 장식에 에나멜을 활용하는 장인 기술의 시초가 되었다. 이러한 에나멜링 기법이 위치메이킹에 사용되면서 단조롭고 모던한 위치 디자인에 컬러풀한 활력과 개성을 불어넣어 진정한 예술 작품을 탄생시켰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1755년 탄생한 후부터 계몽주의 시대의 예술적인 활력을 위치메이킹에 접목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 하이 위치메이킹 분야에서 에나멜링은 메탈 베이스에 얇은 레이어를 연속적으로 가마에서 소성하는 방식으로 구현된다. 작은 다이얼에 에나멜링 작업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수작업 기술뿐 아니라 소재와 성분, 그리고 불을 다루는 소성 기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에나멜 장인은 에나멜링 기술을 구현할 때 최적의 에나멜 파우더를 확보해 언제든 이를 자유롭게 활용하고자 한다. 일부는 유서 깊은 연금술사가 수백 년 전에 혼합해둔 경우도 있다. 바쉐론 콘스탄틴에 있어 에나멜링은 수 세기에 걸쳐 세심하게 지켜온 유산을 기반으로 한 예술 공예 기법을 의미한다. 그렇기에 바쉐론 콘스탄틴의 에나멜 장인은 하이 위치메이킹의 정수로 여겨지는 미니어처 페인팅과 그리자유 에나멜의 전통을 계승하는 몇 안 되는 사

1 루브르를 위한 경매(Bid for the Louvre) 옥션을 통해 루브르 박물관에서 소장중인 작품을 미니어처 페인팅 다이얼로 구현한 단 하나뿐인 비스포크 타임피스. 2 에나멜 파우더를 비롯하여 작업에 필요한 다양한 툴을 감상할 수 있는 에나멜러의 작업실. 3 다채로운 색의 에나멜 파우더. 4 그리자유 에나멜 제작 과정.

람들 중 하나다. 이번 전시에서는 바쉐론 콘스탄틴이 에나멜링과 함께해온 모든 역사와 에나멜링의 네 가지 대표 기법인 미니어처 페인팅(miniature painting), 샹르베(champlevé), 클루아조네(cloisonné), 그리자유(grisaille)를 조명하며, 이를 통해 탄생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헤리티지 타임피스는 물론 세계적인 명화를 정교하게 다이얼에 재현한 마스터피스를 선보인다. 그뿐 아니라 정교한 예술이 태어나는 현장이자 비밀스러운 공간인 에나멜러의 작업 공간까지 공개하며 바쉐론 콘스탄틴 메종의 에나멜링 기술에 대해 더욱 깊이 조명한다.

정교한 예술의 탄생 현장

에나멜러의 작업 공간은 매우 비밀스럽다. 색채의 장인이라 불리는 마스터 에나멜러는 본인이 제작한 다이얼에 숨겨진 노하우를 밝히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그가 사용하는 도구 또한 산성시된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에나멜 장인은 "메종의 아틀리에에서는 주도적으로 작업을 진행하며 자율성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에나멜링 기술을 익히려면 차분함, 고요함, 그리고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둘 수 있는 특별한 역량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한다. 다른 위치메이킹 기술인 기요세, 잉그레이빙, 켄 세팅 장인과는 상당히 다른 에나멜러의 작업 공간에서 관람객들은 에나멜, 페인트, 골드 리프, 골드 와이어, 세이를 해어 브러시, 가마 등을 활용해 실제 작업하는 정교한 공정을 엿볼 수 있다. 특히



가마 소성 공정은 제어하기가 매우 까다롭다. 불을 거치면서 에나멜 장인의 모든 기술이 비로소 드러나기 때문에 마스터 에나멜 장인들은 이를 '마법'이라 부르기도 한다. 컬러 팔레트가 완전히 구현될 때까지 필요한 만큼 반복되는 가마 소성 작업에서 에나멜에 금이 가거나, 표면에 미세한 기포가 생기거나, 컬러가 타버리는 등 앞서 진행한 작업이 손상되면서 작품이 변형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마스터 에나멜 장인은 이렇게 연속적으로 진행되는 소성 과정에 대해 설명한다. 이외에도 에나멜링 기법을 적용한 다이얼과 테크닉 샘플 등을 전시에서 직접 만나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전시는 독자적 비밀을 지닌 공예 기법이자 연금술인 에나멜링을 경험하는 진귀한 기회가 되어줄 것이다. 문의 1877-4306 에디터 성정민

“
에나멜링 기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수작업 기술뿐 아니라 기본 소재인 에나멜과 그 성분, 그리고 소성 기법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by 바쉐론 콘스탄틴 마스터 에나멜 장인

The Artistry of Enamel

유리질 재료인 에나멜을 다이얼에 올린 뒤 고온에서 소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는 에나멜링은 제작 과정에서 미세한 균열과 기포, 색상의 변화 등이 발생할 수 있어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장식 기법이다. 바쉐론 콘스탄틴은 2백71여 년에 걸쳐 이러한 에나멜 장식 기술을 꾸준히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독보적 위치를 구축해왔다. 지금부터 바쉐론 콘스탄틴이 선보여온 주요 에나멜링 기법과 이를 적용한 헤리티지 타임피스를 살펴본다.



1

Handcrafted Engraving

에나멜링 기법 중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샹르베(champlevé)는 다이얼이나 케이스 등의 금속 표면을 파낸 뒤, 그 공간에 에나멜을 채워 넣는 기술이다. 여러 차례의 소성을 거쳐 에나멜을 융착시키고, 마지막에는 표면을 연마해 매끄럽게 마감한다. 금속 표면에 다양한 형태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 기하학적인 패턴부터 꽃과 동물, 풍경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문양을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포켓 워치 레퍼런스 12161은 플로렐 모티브를 중심으로 장식해 고전적이고 엔틱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 작품에서 두드러지는 자연의 유기적인 곡선과 풍부한 색채에는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유행한 아르누보 양식이 반영되어 있다.



2



3

1 모던한 화이트 다이얼과 선명한 대비를 이루는 화려한 플로렐 모티브를 샹르베 기법으로 구현한 레퍼런스 12161 포켓 워치. 2 시간을 표시하는 특별한 디스플레이로 샹르베 에나멜링을 구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 '캐비노티에 상인 버즈 블루 티트'. 3 에나멜을 얇게 도포한 뒤 소성하는 과정을 여러 차례 반복해 완성하는 미니어처 페인팅 에나멜링. 4 제네바의 캐비노티에 워크숍에서 작업하는 18세기 장인의 모습을 담은 레퍼런스 11033 포켓 워치.



4

Painting of art

미니어처 페인팅(miniature painting)은 작은 다이얼에 세밀한 이미지를 구현하는 고난도 에나멜 장식 기법이다. 한 번에 칠고 두껍게 색을 올리는 대신, 얇은 층을 차례대로 도포하고 각각 소성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원하는 색감과 명암, 세부 묘사를 완성한다. 마지막에 에나멜 플럭스 성분을 더해 표면을 보호하고 광택을 높이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1994년에 제작한 바쉐론 콘스탄틴의 포켓 워치 레퍼런스 11033은 미니어처 페인팅의 정교함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헤리티지 타임피스다. 다이얼에는 캐비노티에 워크숍에서 작업하는 장인들의 모습이 담겨 있으며, 스위스 미니어처 페인팅 장인 뮌리엘 세쇼(Muriel Séchaud)의 서명을 담아, 회화적 완성도와 메종의 장인 정신을 함께 드러낸다.



5

“

워치메이킹 분야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온 바쉐론 콘스탄틴의 기술력은 에나멜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무수한 변수와 오차를 섬세하게 제어하며 완성도 높은 결과물을 만들어낸다”

5 어두운 에나멜 위에 흰색 에나멜을 겹겹이 올려 명암을 표현하는 그리자유 기법. 6 깊은 바다와 산호, 거북이를 그리자유 기법으로 표현한 캐비노티에 그리자유 터틀 워치. 7 골드 와이어로 밀그림을 완성한 뒤 그 안에 에나멜을 채우고 여러 차례 소성해 원하는 컬러와 입체감을 표현한 클루아조네 기법. 8 클루아조네 기법으로 블루 다이얼을 구현하고 기하학적인 금속 곡선으로 태양 모티브를 강조한 레퍼런스 11579.

Luminance in Layers

소성 시간을 초 단위로 정밀하게 제어해야 하는 그리자유(grisaille) 기법은 블랙에 가까운 어두운 에나멜 바탕에 불투명한 흰색 에나멜을 얇게 여러 겹 올려 명암을 표현한다. 흰색 에나멜의 농도와 층을 조절해 밝기의 차이를 만들어내며, 이를 통해 형태와 입체감을 부여한다. 특히 열이 조금만 과도해도 색상 혹은 표면이 변하거나 명암의 경계와 디테일이 흐려질 수 있어 높은 숙련도가 요구된다. 바쉐론 콘스탄틴 역시 그리자유 기법은 오랜 훈련과 정밀한 소성 과정이 필요한 분야라고 설명한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캐비노티에 그리자유 터틀(Le Cabinetiers Grisaille-Turtle)'을 들 수 있다. 바다를 연상시키는 다이얼에 산호와 거북이를 섬세하게 표현한 작품으로, 빛과 그림자의 대비를 통해 깊은 바닷속 풍경을 연출했다. 색채를 절제하고 명암을 중심으로 구성된 다이얼은 수심이 깊어질수록 주변의 색이 사라지고 빛과 그림자만 남은 듯한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이를 구현하기 위해 마스터 장인은 먼저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밀그림을 완성하고, 그림자의 형태와 깊이를 예상하며 세부적인 구성을 잡는다. 이후 어두운 에나멜층에 '리모주 화이트라' 불리는 흰색 에나멜을 얇게 올리고, 각 층을 정해진 시간 동안 가마에서 소성한다. 10회 이상 반복하면서 거북이와 주변 자연환경에 점차 형태와 깊이를 더한다. 수많은 층을 쌓아 올리는 긴 작업 끝에 약 1백20시간에 걸친 에나멜링이 완성되며, 깊은 바닷속을 연상시키는 초현실적인 장면이 다이얼 위에 펼쳐진다.

Mastery Within the Lines

클루아조네(cloisonné)는 얇은 골드 또는 실버 와이어를 이용해 밀그림의 구획과 윤곽을 만든 뒤, 그 안에 색색의 에나멜을 채워 소성하는 기법이다. 금속 선으로 나눈 각각의 공간에 에나멜을 채우고, 여러 차례 소성을 거치면서 원하는 볼륨과 컬러를 얻는다. 공정이 끝나면 다른 기법과 동일하게 래핑 공정 및 유약 처리 등을 거쳐 매끄럽게 마감한다. 1953년에 제작한 레퍼런스 11579는 1950년대 유럽의 건축과 장식, 회화, 조각 등에서 나타난 예술적 흐름을 반영한 모델이다. 당시 스위스 예술가 한스 에르미(Hans Ermi)의 작품에서 영감받아 둥근 형태와 유려한 곡선을 추상적으로 풀어낸, 이른바 '자유로운 양식'을 다이얼에 구현했다. 얇게 구부린 금속 선으로 각 모양의 영역을 나누고 그 안에 다채로운 에나멜을 채워, 태양을 중심으로 생동감 있는 구성을 완성했다. 문의 1877-4306

에디터 김하얀



7

8

A Quartet of Excellence

바쉐론 콘스탄틴은 이번 <ART OF TIME: 에나멜드 마스터피스> 전시를 통해 명화를 다이얼에 재현해 소장자를 넘어 착용할 수 있는 마스터피스 4점을 선보인다. 지름 3.3cm의 다이얼 위, 극도로 섬세한 미니어처 페인팅 기법으로 수놓은 마르크 샤갈, 에드가 드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 그리고 에마누엘 로이체 등 저명한 아티스트들의 작품이 고스란히 다이얼에 펼쳐지며, 관람객들에게 깊은 예술적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1

캐비노티에 오마주 투 페테르 파울 루벤스, 양기아리 전투 속 깃발을 위한 투쟁

바쉐론 콘스탄틴의 'Masterpiece on Your Wrist' 프로그램의 시작을 알린 작품으로 2020년 개최된 '루브르를 위한 경매(Bid for the Louvre)'를 통해 비스포크 캐비노티에 타임피스를 낙찰받은 낙찰자의 요청으로 제작된 타임피스다. 그는 프라이빗 투어를 통해 루브르 박물관이 소장한 예술 작품 중 다이얼에 에나멜로 구현 가능한 디자인을 논의했으며, 그 결과 페테르 파울 루벤스가 그린 드로잉 원본이 낙점되어, '오마주 투 페테르 파울 루벤스, 양기아리 전투 속 깃발을 위한 투쟁(Homage to Peter Paul Rubens, La lutte pour l'étendard de la Bataille d'Anghiari)'이 미니어처 페인팅 다이얼로 충실하게 재현되었다.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에나멜러는 강렬한 인물과 말의 이미지를 세피아 컬러의 부드러운 잉크 드로잉으로 구현하는 전통적 기법과 함께 그리자유 에나멜에 사용하는 불랑 드 리모주를 독창적인 방식을 더해 말갈기 같은 디테일에 입체적인 매력과 역동성을 부여했다. 핑크 골드 케이스, 인하우스 칼리버 2460 SC를 장착하고, 로터에는 루브르 박물관의 동쪽 파사드를 인그레이빙했으며, 오피서 타임 케이스 백에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라는 의미의 '체르카 트로바(Cerca Trova)' 캘리그래피를 인그레이빙해 매력적인 자태를 자랑한다.



4

메티에 다르 샤갈 & 오페라 드 파리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의 천장화인 마르크 샤갈(Marc Chagall)의 '꿈의 꽃다발'을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구현한 15개의 유니크 피스로 2007년부터 시작된 바쉐론 콘스탄틴과 파리 국립 오페라와의 파트너십을 기념하며 제작되었다. 1964년 완성된 마르크 샤갈의 유일한 천장화는 모차르트, 차이콥스키 등 세계적인 음악가의 오페라 및 발레 명작을 표현함과 동시에 에펠탑, 개신교, 오페라 가르니에 등 파리의 랜드마크를 몽환적이고 화려한 색채로 표현한 걸작이다. 이 작품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스터 에나멜 장인 아니타 포셰(Anita Porchet)가 제네바 그랑 피에나멜링 기법을 적용한 미니어처 페인팅 다이얼로 구현한 타임피스가 바로 '메티에 다르 샤갈 & 오페라 드 파리(Métiers d'Art Chagall & L'Opéra de Paris)'다. 첫 번째 모델은 '유명 작곡가들에게 바치는 헌사(Tribute to Famous Composers)'라는 이름으로 2010년 11월 20일 파리 국립 오페라 후원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며 오페라 가르니에에서 열린 갤러리에서 처음 공개했다. 나머지 14개의 유니크 피스는 그 후 2년에 걸쳐 사랑과 음악, 희망을 이야기하는 샤갈의 천장화 부분을 각 다이얼로 나눠 그리며 완성되었다. 전시된 시계에는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장-필립 라모에게 바치는 헌사의 의미를 담아 그의 영혼을 색채로 표현한 천장화의 일부가 묘사되어 있다. 더불어 이 파트너십의 주인공인 파리 오페라 가르니에 건물과 케이스 백에 인그레이빙된 'Homage à J. P. Rameau' 문구를 볼 수 있다.

4 에나멜러의 작업실.
5 제네바 그랑 피에나멜링 기법을 적용한 미니어처 페인팅 다이얼로 구현한 타임피스, '메티에 다르 샤갈 & 오페라 드 파리'. 6 프랑스 국립 발레단 창단 300주년을 기념하여 에드가 드가의 발레 무용수 작품을 에나멜링 기법으로 구현한 다이얼. 7 하우스 칼리버 2460 SC를 탑재해 완성한 '메티에 다르 오마주 아라르 드 라 댄스' 타임피스.

캐비노티에 오마주 투 에마누엘 로이체,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

2023년 체결된 바쉐론 콘스탄틴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파트너십으로 'Masterpiece on Your Wrist' 프로그램이 확장되었다. 이에 따라 선택한 예술 작품을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재현한 다이얼의 캐비노티에(Les Cabinotiers) 시계를 비스포크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혔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 중인 에마누엘 로이체(Emanuel Leutze)의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Washington Crossing the Delaware)'은 1776년 12월 25일 밤에서 26일로 넘어가는 사이 조지 워싱턴이 델라웨어 강을 건너 트랜트 전투로 이어지는 기습 작전을 수행하는 장면을 담고 있다. 2천4백 명의 병력을 이끌고 얼음이 가득한 강을 건너 트랜트 전투에서 해군군을 성공적으로 공격함으로써 사기가 꺾여가던 독립 혁명군의 기세를 다시 살려낸 미국 독립 전쟁을 상징하는 가장 유명한 그림을 미니어처 페인팅 다이얼의 타임피스로 정교하면서도 사실적인 모티프로 재현했다. 인하우스 칼리버 2460 SC를 탑재한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로터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정면 파사드를 인그레이빙해 특별한 파트너십을 기념하며, 오피서 타임 케이스 백에는 작품명을 인그레이빙해 완성했다.

1 '양기아리 전투 속 깃발을 위한 투쟁'을 미니어처 페인팅 다이얼로 재현한 캐비노티에 워치. 2 '캐비노티에 오마주 투 에마누엘 로이체,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 워치. 3 미니어처 페인팅 기법으로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이 소장 중인 에마누엘 로이체의 '델라웨어 강을 건너는 워싱턴'을 다이얼에 구현하는 과정.

2



3



6



5

“

2023년 체결된 바쉐론 콘스탄틴과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사이의 파트너십으로 선택한 예술 작품을 미니어처 페인팅으로 재현한 다이얼의 캐비노티에 시계를 비스포크로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기회와 선택의 폭을 넓혔다”



7

메티에 다르 오마주 아라르 드 라 댄스

메티에 다르 오마주 아라르 드 라 댄스(Métiers d'Art Hommage à l'Art de la Danse)는 2013년 프랑스 국립 발레단 창단 300주년을 기념해 무용 예술에 바치는 헌정으로 탄생했다. 에드가 드가(Edgar Degas)의 '레펠리에가 오페라 발레 연습실(Ballet Room at the Opera in Rue le Peletier)', '발레 리허설(Ballet Rehearsal)', '무대로 들어서는 두 무용수(Two Dancers Entering the Stage)' 등 발레 무용수 작품을 구현한 이 타임피스는 최고의 마스터 에나멜러만이 해낼 수 있는 어두운 컬러 에나멜 배경에 창백한 화이트 에나멜인 리모주 화이트를 연속적으로 더해 누적시키는 방식으로 그랑 피 그리자유 에나멜링 기법을 적용했다. 다이얼 위로 쌓이는 각각의 레이어는 초 단위로 계산된 시간 동안 소성 과정을 거친다. 매종의 마스터 에나멜러는 반투명한 브라운 컬러와 리모주 화이트 에나멜을 사용한 명암 효과로 미세한 튀튀 주름, 벨벳처럼 부드러운 리본 텍스처, 그리고 투명한 털을 구현해 사실감을 살렸다. 발레리나의 우아한 춤 동작을 그린 이 타임피스는 지름 40mm의 화이트 골드 케이스에 제네바 출마크를 받은 인하우스 칼리버 2460 SC를 탑재했으며, 오피서 타임 케이스 백에는 작품명을 인그레이빙했다. 문의 1877-4306 에디터 성장민

Partnership with Museums

저명한 기관과의 문화·예술적 파트너십을 통해 선보이는 메티에 다르 컬렉션과 에나멜링 기법으로 선보이는 비스포크 마스터피스.



2016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18세기 정밀 시계의 마스터피스이자 1754년 루이 15세에게 헌정되어 베르사유 궁전 및 트리아농 국립 박물관이 루브르 박물관에 기탁한 '세계의 창조, 팬들 클락'의 복원 작업을 지원한 것을 계기로 2019년 루브르 박물관과 체결한 파트너십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이 파트너십은 바쉐론 콘스탄틴과 루브르 박물관이 공동으로 중요성을 부여하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산을 보호 및 전승하기 위한 헌신을 이어가는 데 의의를 둔다. 따라서 두 기관 모두 장인 기술을 존중하면서도 예술을 향한 열정, 유산, 그리고 탁월한 노하우를 전승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2022년과 2026년, 바쉐론 콘스탄틴 메종은 루브르 박물관과의 협업으로 고대 문명에 경의를 표하며 각 시대의 장식 예술과 문화적 상징을 담은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그레이트 시빌라이제이션(Métiers d'Art Tribute to Great Civilisations)' 시리즈를 선보였으며, 2025년

바쉐론 콘스탄틴 설립 270주년을 기념해 워치메이킹을 뛰어넘은 마스터피스인 라 퀘트 뒤 땀(La Quête du Temps)을 루브르 박물관의 <메카니크 다르(Mécaniques d'Art)> 전시에서 공개하는 등 파트너십을 돈독히 하고 있다. 2023년, 바쉐론 콘스탄틴은 또 하나의 파트너십을 맺는다.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과의 파트너십으로 창의성과 혁신을 추구하는 지식과 전문 기술을 보존하고, 이를 전승하고자 하는 확고한 의지를 보여준 것. 그 일환으로 메트로폴리탄과 바쉐론 콘스탄틴은 예술 및 창의적인 커뮤니티와 소통하며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 및 다양한 교육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미션 중심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또 각자의 풍부한 헤리티지와 문화적 유산을 미래 세대를 위해 계승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기술적 역량과 예술적 혁신성을 갖춘 전 세계의 장인 중 3명을 최종 선정하고, 18개월 간 이어지는 연구, 창작, 교류를 지원하며, 메트로폴리

1 2019년부터 루브르 박물관과 체결한 파트너십을 이어오고 있는 바쉐론 콘스탄틴.
2 2023년부터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과의 파트너십을 이어가고 있다.
3 올해 4월 공개한 새로운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그레이트 시빌라이제이션 타임피스' 다이얼에는 루브르 박물관 마스터피스에서 영감 받은 작품들을 담았으며 전설적인 무브먼트 칼리버 2460 G4/2를 탑재했다.

탄 미술관에서 작품을 발표할 기회를 제공하는 '아티스트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예술 경험 및 교육을 제공할 미술관을 꿈꾸던 미국 시민들의 염원을 담은 메트로폴리탄의 설립 취지와 문화적 지식 보전, 크래프트맨십의 혁신을 지원하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가치관이 만나 이루어진 협업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바쉐론 콘스탄틴은 루브르 박물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과 맺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2023년부터 'Masterpiece on Your Wrist'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다. 문화적, 예술적 파트너십으로 시계 애호가들에게 세계적으로 저명한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서 소장 중인 마스터피스를 에나멜 다이얼로 구현해낸, 세상에 단 하나뿐인 비스포크 타임피스를 제작할 기회를 선사하는 것. 메종은 개비노티에의 위대한 전통을 계승하는 의미로, 고객의 의뢰를 받아 개인적 의미를 담은 특별하고 놀라운 타임피스를 제작한다. 이 프로그램을 의뢰하는 고객은 전문가와 큐레이터의 가이드에 따라 프라이빗 투어를 통해 소장하고자 하는 예술 작품을 선택할 수 있다. 또 제네바의 바쉐론 콘스탄틴 매뉴팩처를 방문해 시계를 제작하는 마스터 워치메이커와 장인을 직접 만나 구성을 논의하는 특별한 기회도 경험할 수 있다. 이 비스포크 타임피스 제작에는 약 2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완성된 타임피스는 루브르 박물관 또는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선택한 예술 작품 앞에서 만날 수 있어 특별한 순간을 더욱 빛나게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저명한 각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 작품에 담긴 스토리와 개인적 메시지 및 디테일을 손목 위에 소장하는,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특별한 기회가 될 것이다.

문의 1877-4306 에디터 성정민



“
바쉐론 콘스탄틴과 루브르 박물관이 공동으로 중요성을 부여하는 역사와 문화를 반영하며,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다양한 형태의 유산을 보호 및 전승하기 위한 헌신을 이어가는 데 의의를 둔다”

A Privileged Encounter



1 바쉐론 콘스탄틴 마스터 기요세와 켈세팅 장인의 손길로 탄생한 12개의 별자리를 담은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더 셀레스티얼' 시리즈.
2 기요세 기법 및 켈세팅으로 장식적인 아름다움을 구현한 사수자리 모델. 3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트래디셔널 심볼즈 이터널 플로우' 제작 과정 중 하나. 클루아조네 에나멜링 기법을 활용해 골드 와이어를 배치하고 그림의 구획을 나누는 작업이다.
4 완성된 에나멜 다이얼에 핸즈를 구동하는 장면.
5, 6 '트리뷰트 투 트래디셔널 심볼즈 이터널 플로우'는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이며, 화이트 골드 모델을 만나볼 수 있다.



일반적인 시계 제작의 영역을 넘어 장인의 섬세한 손길과 예술적 장식 기법을 작은 다이얼에 펼쳐 보이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메티에 다르. 에나멜링, 기요세, 켈세팅 등 다양한 장식 기법을 통해 독창적인 미학을 한 점의 타임피스에 집약한 이 컬렉션에는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닌 모델들이 있다. 밤하늘의 별자리를 정교한 기요세와 켈세팅으로 구현한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더 셀레스티얼'과 동양의 전통과 상징을 에나멜링 기법으로 섬세하게 풀어낸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트래디셔널 심볼즈 이터널 플로우'가 그 주인공이다. 서로 다른 영감과 표현 방식을 통해 바쉐론 콘스탄틴이 보여주는 메티에 다르의 세계를 두 타임피스로 만나본다.

Symbol of Constellation

인류는 태초부터 밤하늘의 신비로움에 매료되었으며, 오랜 시간 하늘을 관찰하고 별의 움직임을 기록해왔다. 그 과정에서 별자리는 시간의 흐름을 이해하고 자연의 질서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었고, 천체의 움직임을 읽으며 시간을 측정해온 역사는 위치메이킹 과도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 바쉐론 콘스탄틴 역시 창립 초기부터 천체와 별자리에서 꾸준히 영감을 얻었으며, 그 상징과 의미를 기리는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더 셀레스티얼(Méiers d'Art Tribute to the Celestial)'을 선보인다. 2021년 캐비노티에 워크숍이 선보인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 스카이 차트 레오 컨스텔레이션 주얼리 위치'에서 영감받은 시리즈는 12개의 모델로 구성되어, 각각 하나의 황도대 별자리와 그에 대응하는 점성술적 상징을 담았다. 깊은 밤하늘을 연상시키는 다이얼에는 바쉐론 콘스탄틴의 마스터 기요세 장인이 개발한 독창적인 기법으로 별자리의 형상을 새겼고, 그 주변을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수놓아 별이 빛나는 풍경을 완성했다. 이 기법은 총총하게 새긴 작선으로 수많은 삼각형을 만든 뒤 각 선의 각도와 방향을 달리해 별자리의 형태를 조각하는 방식으로, 하나의 별자리를 완성하는 데만 약 16시간의 집중적인 수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쌍둥이자리, 처녀자리, 사수자리, 물병자리처럼 인물을 형상화한 네 별자리에는 오팔린 마감으로 부드럽고 은은한 빛을 끌어냈다. 다이얼을 둘러싼 베젤과 크라운, 러그, 버클에는 총 96개의 바게트 컷 블루 사파이어를 세팅해 짙은 블루 컬러의 조화를 이어가며, 켈세팅에만 약 27시간을 들여

각 스톤을 빈틈없이 맞물리도록 배치했다. 여기에 리브드 패턴의 화이트 골드 아워 마커로 다이얼의 깊이와 입체감을 살리고, 6시 방향에는 투르비옹 케이지를 배치해 시계의 기계적 움직임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화려한 외관을 뒤흔치는 것은 울트라-셀프 와인딩 매뉴팩처 투르비옹 칼리버 21600이다. 총 1백88개의 부품으로 구성된 칼리버 2160은 두께가 단 5.65mm에 불과하며,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한다. 별자리의 형상을 구현한 다이얼과 정교한 켈세팅, 그리고 투르비옹을 하나의 위치에 결합한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더 셀레스티얼'은 천체와 시간의 관계를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장인 정신과 현대적인 미학으로 재해석한 메티에 다르 컬렉션이다.

Eastern Spirit

서로 다른 분야와의 협업은 브랜드의 정체성을 확장하는 동시에 기존 컬렉션과 차별화된 디자인과 스토리로 시계에 독창성과 상징성을 더한다. 바쉐론 콘스탄틴 역시 베이징 고궁 박물관의 전 부연구관원과 협업해 완성한 리미티드 에디션은 선보이며 메종의 장인 정신과 창의성을 새로운 방식으로 풀어냈다. 그 결과물이 바로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트래디셔널 심볼즈(Méiers d'Art Tribute to Traditional Symbols)' 시리즈다. 고대 중국 문화에 경의를 표하는 이 시리즈는 14세기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의 전통적인 '바닷가 절벽' 모티브를 두 가지 스타일로 재해석한 것이다. 바닷가 절벽 모티브는 예로부터 중국 황실의 건축 요소를 비롯해 가구와 도자기, 황실 의복 등에



바쉐론 콘스탄틴의 메티에 다르는 장인의 높은 숙련도와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완성되며, 메종이 이어온 전통과 미학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핵심적인 요소다

폭넓게 사용됐으며, 특히 의복의 밑단과 소맷단에도 수놓아 행운과 번영을 가져다주는 상징으로 여겨왔다. 그중 '이터널 플로우(Eternal Flow)'는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 산봉우리를 둘러싼 거센 파도가 어우러진 풍경을 생생하고 풍부한 색감으로 표현했으며 이러한 장면은 중국 전통 공예에서 발전한 클루아조네 에나멜링 기법을 통해 다이얼에 정교하게 구현됐다. 약 2백20개의 골드 와이어를 다이얼에 배치해 각각의 구획을 만들고, 색상과 농도에 따라 에나멜을 여러 겹으로 채운 뒤 각각의 층을 소성하는 과정을 거쳐 원하는 형태와 색감을 완성한다. 작품 특유의 색채와 깊이감을 구현하기 위한 에나멜링 과정에만 70시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반투명 에나멜을 더해 다이얼 표면에 매끄러운 질감과 은은하면서도 독특한 광채를 부여한다. 베젤에는 중국의 전통적인 길상 문양인 박쥐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핸드인그레이빙을 더한다. 중국어로 박쥐는 행복이라는 단어와 발음이 비슷해, 예로부터 행운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사용되어왔다. 이처럼 중국의 문화적 상징을 강렬하면서도 섬세한 표현으로 승화한 다이얼은 지름 38mm의 화이트 또는 핑크 골드 케이스에 탑재되며, 셀프 와인딩 칼리버 2460을 장착해 시와 분을 표시한다. 전통적인 상징과 메티에 다르의 장인 정신을 하나의 시계에 담아낸 '메티에 다르 트리뷰트 투 트래디셔널 심볼즈 이터널 플로우'는 단순히 중국 문화를 재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바쉐론 콘스탄틴만의 미학과 기술력을 통해 이를 현대적인 시계 예술로 재해석했다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문의 1877-4306 메티에 다르 김하얀

STYLECHOSUN.COM 대표 박정호, 권민정, 김유미, 박선, 부디, 디렉터 김하얀, 디자인 나나비나, 스토리텔러 고영, 이영희, 수정 박민정, 박영하, 김준석, 이영희, 유우희, 제작 김현기, 채무 노영경, 문해, 제판 덕업 인쇄,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코스, 서울 서초구 서원로 413 현대 하이패라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및 광고 문의 02-749-5665






VACHERON CONSTANTIN | ONE OF
GENÈVE NOT MANY.

ART OF TIME: 에나멜드 마스터피스 전시

2026.09.05 – 09.22

메종 1755 서울 | 압구정로 430